

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원 지 은 *

1. 들어가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는 각 국가의 국내법 및 제도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국가들은 각국의 상황과 특징에 따른 우선순위와 목표를 포함한 학교급식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EU는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연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신선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각국의 학교급식정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및 추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EU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학교급식 제도 지원을 위해 실시했거나 실시하고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이어서 영국과 이탈리아의 학교급식과 지역농업 간의 연계 사례에 대해 정리하여 제시한다.

2. 유럽 학교급식정책 운영 현황¹⁾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및 스위스의 국가 학교급식정책 분석(Mapping of National School Food Policies across the EU28 plus Norway and Switzerland)'에 따르면 28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스위스를 포함한 총 30개

*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석사(wjesmu@gmail.com).

1) 2장의 내용은 유럽연합 산하의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에서 발간한 'Mapping of National School Food Policies across the EU28 plus Norway and Switzerland'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국에서는 모두 학교급식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필요와 특징에 따라 정책의 세부내용은 단순한 교내 허용(불허용) 식품 목록부터 급식식단 계획, 급식업체 조달, 급식소 직원 교육, 식당 및 주방 시설, 교내 식품 판매 금지조항 등을 아우르는 보다 넓은 범주의 가이드라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정책의 82%는 미취학 및 그에 상응하는 나이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이들을 위한 보완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각 국가의 정책 구성 및 중점사항에 따라 30개국에서 추진 중인 34개 정책²⁾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2.1.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구성

유럽 학교급식정책은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별 정책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거나, 다른 정책의 일부 조항으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체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65%가 별개의 독립 정책으로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만 정책(26%), 교육 정책(24%), 보건 정책(15%)의 일부로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³⁾ 또한 국가의 행정 및 정책운영 체제에 따라 정책 소관 부처 또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전체 학교급식정책의 약 47%는 둘 이상의 부처가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부(29%), 교육부(18%), 농업부(3%)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34개 정책 중 18개 정책이 의무조항을 포함한 정책인 반면 16개 정책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항목은 아동 영양 개선으로 전체 회원국 정책의 약 97%에서 해당 내용을 주요 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습관 교육(94%), 아동비만 감소 및 예방(88%), 영양 부족 상태 개선 및 예방(65%), 건강 격차 개선(53%), 성취도 개선(50%) 등이 주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학부모 지역커뮤니티 지원 및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 학교 출석률 향상 등의 목적도 존재한다.

정책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 정책의 74%가 한 가지 이상의 성과평가 대상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많이 활용되는 평가 항목은 학교에서의 식품 제공 여부(56%), 급식 등록률(35%), 아동 영양 상태(29%), 교내 식품 소비량(24%), 급식 서비스 제공의 재무적

2) 대상국 중 벨기에(플랑드르, 왈로니아 지역)와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학교급식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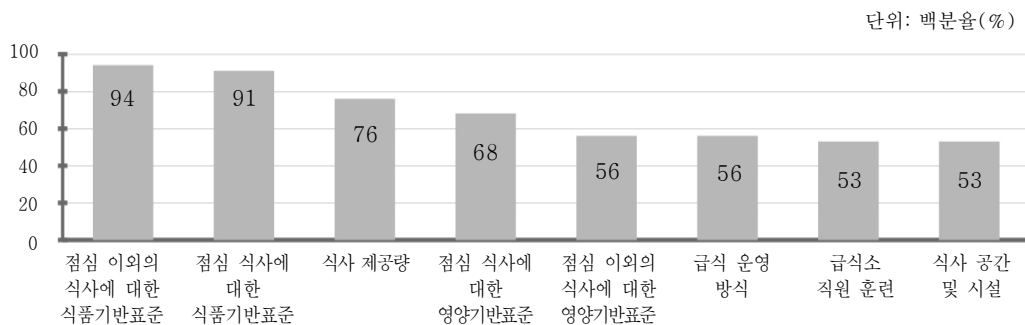
3) 일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다른 정책에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함.

타당성(15%), 지역 농가와의 연계(12%), 건강 격차 개선 정도(6%) 순이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몇몇 국가에서는 학교급식정책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으로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학생들이 충분한 식사 시간을 배정받고 있는지, 선생님, 숙련된 주방 직원 및 또래 학생들과 즐겁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통해 평가 결과로 반영된다.

2.2.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분류 및 중점사항

각 국가별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 및 일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급식정책이 다루는 식사의 시기 및 횟수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정책이 점심(86%)과 간식(88%) 급식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었으며, 아침(65%)과 저녁(47%)을 다루는 정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교급식정책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점심 이외의 식사에 대한 식품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 for non-lunch)’과 ‘점심 식사에 대한 식품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 for lunch)’으로, 대부분 정책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이어서 연령대에 적합한 식사 제공량(Age-appropriate portion size), 점심 식사에 대한 영양기반표준(Nutrient-based standards for lunch)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50% 이상의 정책에서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아래 <그림 1>에 명시되어 있다.

<그림 1> 유럽 학교급식정책 기준 및 가이드라인



주: 50% 이상의 유럽 학교급식정책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기준만 명시함.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위에 명시된 항목들 외에도 조리법(47%), 주방 시설 및 기구(41%), 조달 방법(38%), 식품 준비 및 제공방식(38%) 등도 일부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일례로 오스트리아의 경우 매 쉬는 시간마다 3가지 이상의 과일을 최소 10조각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몰타의 학교급식정책에서는 과일과 채소 사진 포스터와 정확한 식단 및 가격 정보를 게시판에 게시 하여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밖에 식품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26%), 최소 혹은 적정 직원 수준(24%), 식품접촉제품 규격(21%) 등의 항목 또한 기준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식품기반표준(Food-based standards) 내용 중 많은 정책에서 언급된 세부 항목들로는 탄산음료와 같은 특정 음료에 대한 제한, 과일 및 채소 제공, 언제라도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접근성, 식사 준비 및 식사 시 소금 제공량 제한, 당류 및 튀김/가공음식 제한 등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 및 순위는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유럽 학교급식정책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별 언급 빈도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	점심 식사	점심외식사
특정 음료 제한	82%	82%
과일 및 채소 제공	79%	68%
깨끗한 식수 제공	79%	68%
탄산음료 제한	71%	65%
당류 제한	68%	79%
유제품 제공 빈도	65%	n/a
튀김/가공음식 제한	65%	65%
소금 제공량 제한	65%	59%
비육류/비유제품 단백질 제공 빈도	59%	n/a
(등푸른)생선 제공 빈도	59%	n/a
감자칩과 짠 스낵류 (crisps/savoury) 제한	59%	74%
적색육류 제공 빈도	53%	n/a
유지류로 조리한 전분성 식품 제한	53%	53%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그 외에도 일부 학교급식정책들은 저지방 식품 사용, 식사 준비과정, 사용 유지류 등에 대한 의무 혹은 권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통밀 제품의 사용은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스페인, 스위스의 학교급식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식품 첨가물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조항 또한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정책을 통해 약 20일 주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급식 식단을 구성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같은 식품기반표준 세부항목을 활용하는 학교급식정책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그 정도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일 및 채소 제공 항목과 관련하여 몇몇 국가들은 단순히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회 과일 및 채소를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다수의 다른 국가들은 연령대에 적합한 식품 제공량 및 식단에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방법(수프, 샐러드, 디저트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다. 또 다른 경우로, 탄산음료에 대한 제약 또한 특정 경우에만 제공을 허용하는 수준(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스위스 등)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경우(헝가리, 루마니아)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국가에서 공통으로 허용하는 음료 군은 물, 무가당 차, (저지방) 우유와 (희석된) 주스 등이었으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카페인 및 알코올음료의 제공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특정 연령대 아동에 한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경우 교내에서 판매하는 당이 첨가된 음료 대비 물의 가격을 더 낮추고 점진적으로 당첨가 음료 판매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권장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초콜릿, 과자류, 케이크, 비스킷 등의 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간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거나(노르웨이, 스페인) 허용된 간식 리스트를 제공하고(키프로스, 그리스), 혹은 아예 간식 제공을 금지하는(영국 잉글랜드 지역, 스웨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영양기반표준(Energy/Nutrient-based standards)의 경우 앞서 설명한 식품기반표준에 비해 정책 활용도가 낮은 편이지만, 식사 메뉴의 영양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에너지와 지방에 대한 섭취량 기준은 점심과 점심 외 식사 모두 공통으로 많이 고려되는 항목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점심 식사 시에는 단백질 섭취량이, 다른 식사 시에는 당류 섭취량이 주로 고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서 제시한다.

<표 2> 유럽 학교급식정책 에너지/영양기반표준 세부항목별 언급 빈도

에너지/영양기반표준 세부항목	점심 식사	점심 외 식사
에너지	65%	44%
지방	59%	44%
단백질	50%	26%
총 탄수화물	47%	32%
철분	44%	24%
칼슘	44%	26%
비타민 C	44%	29%
섬유질	44%	24%
당류	41%	35%
나트륨	41%	24%
엽산	38%	29%
포화지방	38%	26%
아연	32%	21%
비타민 A	32%	21%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에너지기반표준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유럽 학교급식정책은 점심 식사가 아동의 하루 에너지 필요량의 1/3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학교급식정책 상에 이른바 ‘소량 식사(small meal)’와 ‘대량 식사(big meal)’로 종류를 나누어 영양섭취량을 제안하고 있다. 7-10세 아동을 위한 ‘소량 식사’의 경우 1,800-2,100kJ⁴⁾의 에너지를, 11-15세 아동을 위한 ‘대량 식사’의 경우 2,200-2,500kJ의 에너지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각 연령대의 적정 에너지 및 영양 섭취량을 고려한 185개의 조리법도 제공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학교에서 육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에 중점을 둘 경우에 한해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최대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방섭취량과 관련해서는 대개 국가들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25-35% 수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폴란드와 체코의 경우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합성지방의 적정한 섭취량 수준과 관련해서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경우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로, 이탈리아의 경우는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의

4) 1kJ은 약 0.239kcal에 해당함.

경우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에 대한 내용도 정책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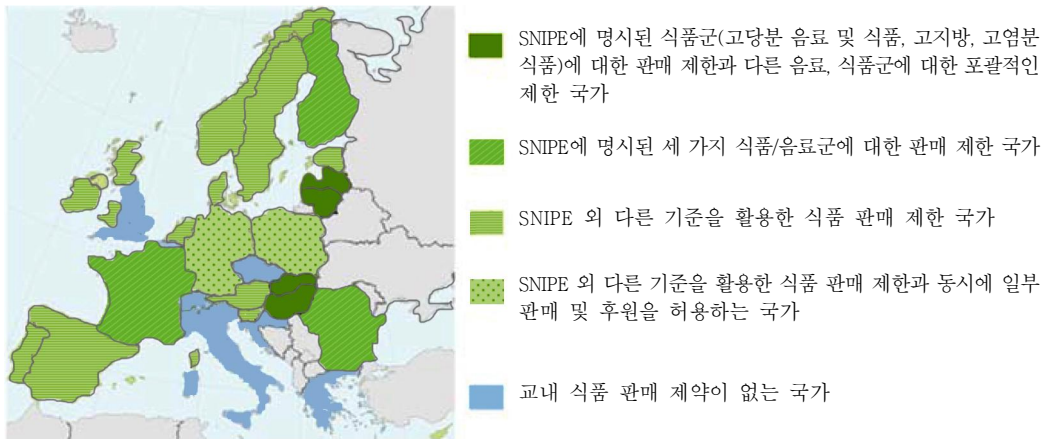
비우유 외재성 당류(Non-milk extrinsic sugars)는 국가에 따라 '단순 당류(simple sugars)', '첨가 당류(added sugars)', '유리 당류(free sugars)', '당류(sugar)' 등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그 섭취량을 하루 에너지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표 2>에 언급된 주요항목 외에도 몇몇 국가들의 정책에서는 정제소금(iodised salt)이나 요오드 섭취량 등의 섭취량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영양기반표준은 필수 영양소의 섭취 부족보다는 지나친 지방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교내 식품 자판기 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상 교내 자판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금지된 국가(키프로스, 덴마크, 프랑스,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부터 특정 불량 식품 및 음료를 제한하는 국가(불가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건강한 식습관 및 기준에 부합하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국가(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영국 웨일즈 지역), 식품 자판기보다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권장하는 국가(벨기에 플랑드르 지역, 이탈리아, 스페인)로 분류된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자판기 판매 제품의 칼로리가 최대 200kcal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는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만 자판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전체 유럽 학교급식정책의 65%는 학교급식소 직원에 대한 필수 훈련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몇몇 국가의 경우 학교급식을 취급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기준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탈리아, 라트비아, 스웨덴 등의 국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훈련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훈련된 직원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키프로스, 체코,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학교급식정책에는 학교급식소 직원에 대한 별도의 필수 훈련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교내 식품 판매 관련해서는 국가마다 금지 식품군 및 제약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몇몇 국가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위한 학교영양지표(School Nutrition Index of Programme Effectiveness: SNIPE)'상에 명시된 고지방, 고당분, 고염분 식품군을 모두 제한하는 반면, 교내 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약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국가정책 또한 있었다. 국가별 자세한 제약 현황은 아래 <그림 2>에 표기되어 있다.

<그림 2> 교내 식품 판매 제약 정도에 따른 국가별 분포



자료: Storcksdieck, S., et al.(2014).

3. EU의 회원국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 계획 및 프로그램

앞서 언급된 회원국들의 학교급식정책 및 급식 제도 지원을 위해 EU는 다양한 지원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수립된 중장기 계획 및 전략 중 학교급식 및 아동 영양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유럽의 영양, 과체중, 비만 관련 건강 이슈에 관련한 전략(The strategy for Europe on nutrition, overweight and obesity related health issues)’과 ‘EU 아동 비만 액션플랜 2014-2020(EU action plan on childhood obesity 2014-2020)’이다. 두 문서에서는 아동의 영양 및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사와 간식, 활발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방향성 아래 EU는 직·간접적으로 회원국의 학교급식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EU에서 기획 및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급식 지원 프로그램들에 관해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3.1. 학교 우유 공급계획(School Milk Scheme)

EU의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아동들이 주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건강한 유제품을

소비하도록 기획되었다. 1977년도에 최초 수립된 이후로, 본 계획은 영양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기능을 함께 수행하며, 아동 비만을 퇴치하고 아동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제품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여해왔다.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EU 회원국⁵⁾의 교육담당부처(교육부)에 등록된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EU의 교내 제공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회원국 정부의 자율적인 추가 예산투입이 가능했다.

EU의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여러 차례에 거친 회원국 간 논의에 따라 조금씩 수정되어 왔으며, 2008년 마지막 개정작업이 진행되었다(EC No. 657/2008). 본 개정작업에서는 회원국과 유럽의회, 이사회의 다양한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내용 및 지원 사항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주된 요청사항은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시행 규칙 마련과 새롭고 다양한 식품군의 반영이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우유와 발효유, 과일주스, 요구르트, 버터밀크, 치즈 등이 지원 대상 식품군에 포함되었으며, 전지(full-fat), 중지방(medium-fat), 저지방(low-fat) 제품에 동일한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2008년 개정 이후 학교 우유 공급계획 하의 EU 보조금은 <표 3>과 같이 다섯 가지 제품군으로 분류되어 단위 무게 당 단가를 근거로 지급되었다.

<표 3> 학교 우유 공급계획에 따른 유제품 식품군 별 보조금 단가

단위: EUR/100kg

제품군	보조금 단가
<u>식품군 1</u> (a) 열처리 된 우유 (b) 초콜릿, 과즙 혹은 첨가물이 함유된 우유 중 (a)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최대 7%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우유 (c) 과즙이나 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발효유 중 (a)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최대 7%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우유	18.15 EUR/100kg
<u>식품군 2</u> 과일이 함유된 유제품 중 발효 및 첨가물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군 1의 (a)의 비중이 75% 이상이며, 최대 7%의 설탕 또는 꿀을 함유한 유제품	16.34 EUR/100kg
<u>식품군 3</u> Non-lactic 재료를 최대 10% 포함하고 있는 신선/가공 치즈	54.45 EUR/100kg

5) 본 프로그램 시행 당시 EU 회원국은 총 27개국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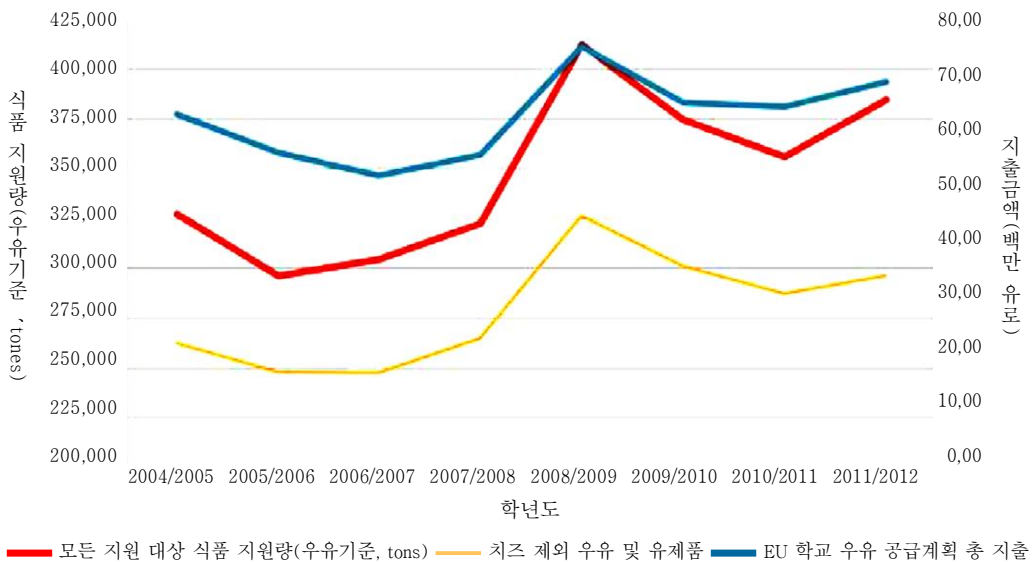
(계속

제품군	보조금 단가)
식품군 4 그라나 파다노 치즈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163.14 EUR/100kg
식품군 5 식품군 3과 4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Non-lactic 재료를 최대 10% 포함하고 있는 치즈	138.85 EUR/100kg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학교 우유 공급계획 소개 페이지
(https://ec.europa.eu/agriculture/milk/school-milk-scheme_en).

2013년 유럽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학교 우유 공급계획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1/12 학년도 기준 학교 우유 공급계획을 통해 지출한 총 EU 보조금은 약 6,800만 유로에 달했다(<그림 3> 참조). 회원국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한 예산(4천 1백만 유로)을 포함하면 약 1억 1,000만 유로에 달하는 규모이다. 마찬가지로 2011/12년 기준 해당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은 총 학생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총 지원 규모는 우유기준 38만 5,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 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즈를 제외한 우유 및 유제품으로, 2008년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식품군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림 3> EU 학교 우유 공급계획 주요 실적 (2004-2012)



자료: AFC Management consulting AG·Co-Concept Marktberatung (2013)

전체 유럽 유제품 시장 규모에 비해 본 프로그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우유를 마시는 식습관을 내재화하고, 이 아동들이 부모세대가 되어 자녀들에게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중학교 학생들을 프로그램의 수혜자 그룹에 포함해 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청소년기 우유 섭취량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비록 교육적인 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회원국에서 학교 우유 공급계획이 비만 및 과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 및 공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학교 우유 공급계획을 통한 EU의 회원국 지원으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추가예산을 들여 학교 우유 급식을 시작하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 및 한 명당 지출예산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예산을 집행한 국가 간에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참여 아동 수가 많을 경우 수혜자층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동 1명당 돌아가는 급식 제공의 질이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동 한 명당 지출예산이 클 경우 대상 수혜자 그룹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충분한 수의 아동을 지원할만한 예산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2013년 8월부터 유럽위원회는 결의안 EC No. 657/2008에 기반해 프로그램 참여 적정 아동 수를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한 바 있다. 또한, 학교 우유 공급계획과 학교 과일 공급계획(3.2. 참고)을 따로 운영함에 있어 행정적인 인력부담과 시너지효과 창출을 저해한다는 평가의견에 따라 두 프로그램을 합병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3.3. 참고)에서 기술한다.

3.2. 학교 과일 공급계획(School Fruit Scheme)

EU의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유럽 내 아동 비만 및 과체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시대적 배경 하에 2006년 유럽 의회에서 유럽위원회 측에 'EU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2008년 7월 유럽위원회는 학교 과일 공급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총 9,000만 유로의 예산을 출자하여 각 회원국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2009년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25개 참여국이 총 9,000만 유로의 예산 아래 EU-회원국 간 50:50 혹은 75:25의 비율⁶⁾로 공동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예산규모가 1억 5천만 유로 규모로 확대되고, 공동 출자 비율도 75:25 혹은 90:10의 비율로 완화하여 그 지원 폭을 점차 넓혀갔다.

앞선 학교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EU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들이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과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연차보고서(Annual Monitoring Reports, AMR)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관련 교육 조치 및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반영해야 한다. 그 결과 국가 및 지역별로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이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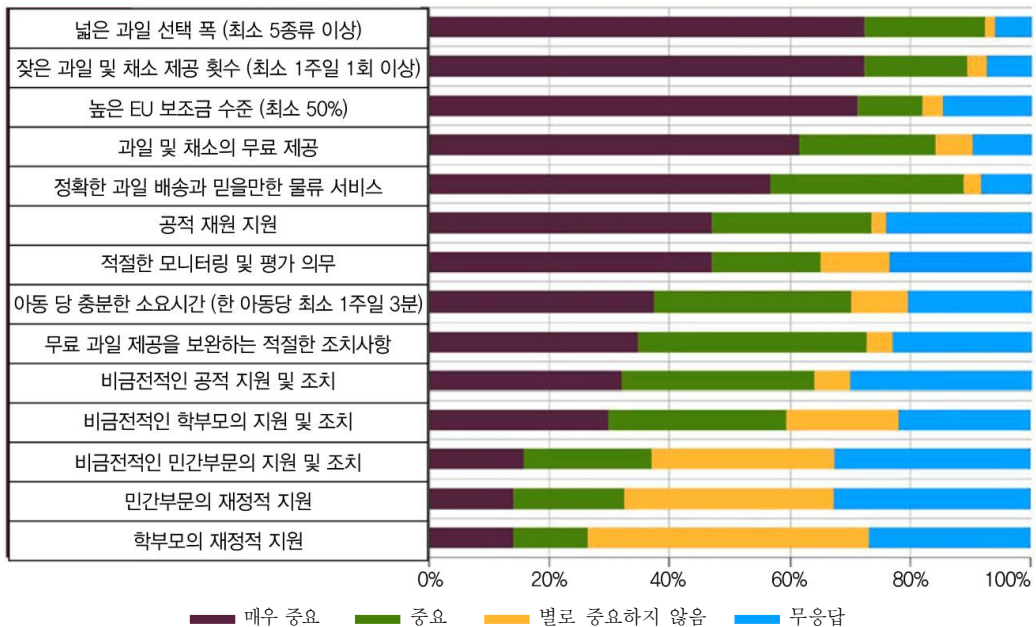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회원국 내에서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수준에서 수행되는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 시행 및 관리한다. 대다수의 참여국(21개국)은 국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지만, 벨기에, 독일, 스페인의 경우 지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을 택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총 16개의 지역 연방 정부 중 7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은 지역 정부의 의사결정권의 자유 정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국가 프레임워크 아래 지역 정부의 관리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스페인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스페인은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지만, 각 지역 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분히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실제로 스페인의 연차보고서를 보면 표준화된 조건들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수정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형태는 국가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해당 방식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경우는 개별 지역별로 전략 및 연차보고서가 제출되며,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연차보고서 문서와 동급으로 취급된다.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은 전반적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증가시켜 식습관 개선에

6) EU의 출자율이 높은 경우는(75:25) 해당 국가가 EU 회원국 평균 1인당 GDP의 75%에 못 미치는 수렴지역(convergence region)이나 외곽지역(outermost region)일 경우에 해당함.

기여하고, 탄수화물, 섬유소, 특정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 부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2013/14학년도 기준 6만 6,000개 학교의 약 1,000만 명의 아동들에게 6만 7,000톤의 과일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2009/10학년도에 3만 2,273학교의 470만 명의 아동들을 지원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본 계획은 짧은 기간에 양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4>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주요 성공 요인



자료: AFC Management consulting AG·Co-Concept Marktberatung (2012).

위의 <그림 4>는 11개국⁷⁾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의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가장 많은 응답자(72%)가 '넓은 과일 선택 폭'과 '짙은 과일 및 채소 제공 횟수'를 매우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아동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학교에서는 적게는 5가지, 많게는 10가지 종류의 과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동들은 다양한 과일의 질감과 맛을 느끼고 학습할 수 있다. 한편, 과일 및 채소 제공 횟수가 1주일에 3회 정도로 증가된다면 아동의 식습관 개선에 보다 지속가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7) 유럽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참여국 10개국과 비참여국인 영국을 포함하여 총 11개국임.

혁신적인 조달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EU의 높은 보조금 수준'은 참여국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의 지속성 및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일 및 채소의 무료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사항'은 기대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향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학교 우유 공급계획과 비교해서 학교 과일 공급계획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 것은 식품 무료 제공 원칙 및 높은 보조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연차보고서 및 국가 전략상에 국별, 시계열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명시되지 않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이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참여국가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국가 전략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앞서 학교 우유 공급계획에서도 언급되었듯 두 계획 간에 행정적인 인력부담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저해된다는 점 등이 한계점 및 개선점으로 제기되었다.

3.3.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School Fruit, Vegetables and Milk Scheme)

EU의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했던 두 가지의 프로그램(학교 우유 공급계획, 학교 과일 공급계획)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두 계획을 단일한 법적 프레임워크 하에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회원국의 급식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우유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식단 제공 및 특정 영양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가공 과일 및 채소(주스, 수프 등), 유제품(요거트, 치즈)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우유를 주원료로 한 음료(milk-based drinks)의 경우 지원 식품군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EU 보조금은 우유 성분량에 한해서만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올리브, 꿀과 같은 다른 농산물이 교육 목적으로 프로그램 대상 식품군으로 추가되었다.

제공하는 식품의 종류는 건강 및 환경적인 요건과 더불어 계절감, 다양성 및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되며, 가능한 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우선한다. 그 외에도 회원국들은 제공 식품을 선정 및 승인할 때 지역 생산품 및 유기농 제품의 우선 조달 및 짧은

공급체인, 환경적 편익, 농산물 품질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본 계획의 목표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품들에는 감미료, 인공조미료 등을 첨가할 수 없다. 식품에 첨가되는 설탕, 소금 및 지방류는 개별 회원국의 건강/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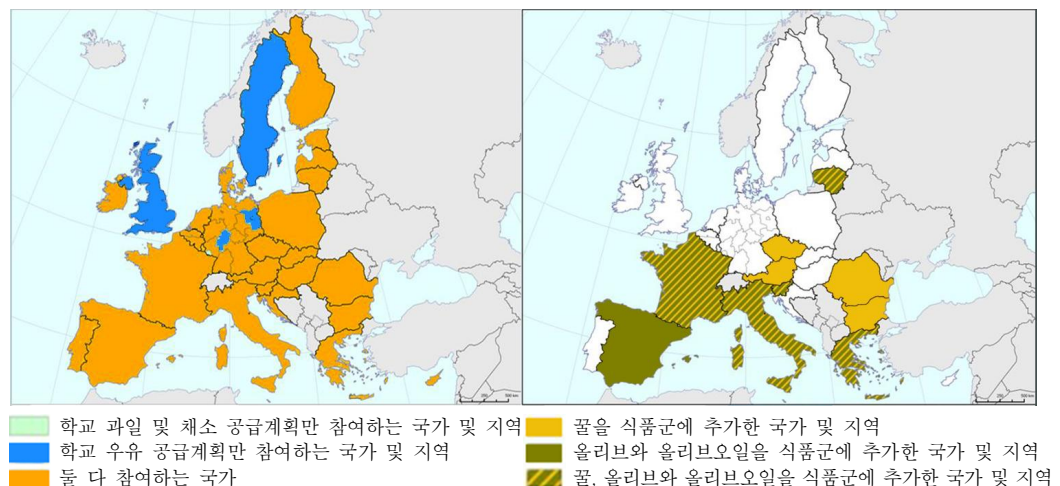
현재 해당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 규모는 약 2억 5,000만 유로이며, 그 중 약 1억 5,000만 유로가 과일과 채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고 약 1억 유로가 우유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학생들에게 과일, 채소 및 우유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농장 방문, 학교 텃밭 가꾸기, 유관 워크숍 개최 등의 교육비용, 정보수집, 홍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타비용으로 쓰인다. 한편, 이전의 학교 과일 공급계획에서 EU와 회원국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프로그램은 100% EU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의 자율적인 추가 예산 투입은 허용된다.

또한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아래 매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출했던 이행 전략은 프로그램 참여 이전 시점에 6년 간 프로그램 장기 이행전략을 한 번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EU에 의해 승인을 얻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참여국 책임 아래 각 국가의 특징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하에서 참여국들의 제공 식품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각 국가는 국가 현황 및 당면과제에 맞추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해 26개의 참여국이 국가 수준에서, 벨기에와 독일 2개국이 지역 수준에서 18개의 별도 전략(벨기에 3개 지역, 독일 15개 지역)을 도출함에 따라 총 44개의 프로그램 장기 이행전략이 제출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17년 기준 28개 EU 회원국들은 모두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그림 5>. 학교 우유 공급계획은 모든 EU 회원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 대상 식품군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시는 우유만 제공하는 단계로, 6개국(키프로스,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스웨덴)과 벨기에 1개 지역 및 독일의 7개 지역에서 택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유제품류를 제공하는 단계로, 9개국(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과 벨기에 2개

지역, 독일의 3개 지역에서 해당 식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설탕 함유가 가능한 유제품의 경우 11개국(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과 독일의 4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 단계를 선택한 국가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기존 프로그램에서 최대 7%까지 허용되는 설탕 첨가량 기준을 자체적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다⁸⁾.

<그림 5>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프로그램 참여 국가 분포 현황



자료: European commission-DG AGRI(2017).

2017년 기준 학교 과일 및 채소 공급계획은 스웨덴과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12개국(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과 벨기에 1개 지역, 독일 12개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오직 신선 과일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참여국의 경우 주스, 콩포트⁹⁾, 건과일, 수프 등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과일 가공식품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소금 및 지방 첨가를 허용하고 있다.

올리브와 꿀의 경우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일부 국가들에서 제공하고 있다. 올리브의 경우 6개국(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에서, 꿀의 경우 9개

8) 오스트리아의 경우 3.5-5.5%, 덴마크,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경우 5%로 조정 예정임.

9) 프랑스에서 유래한 후식의 일종으로 과일과 시럽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임.

국(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에서 학교 급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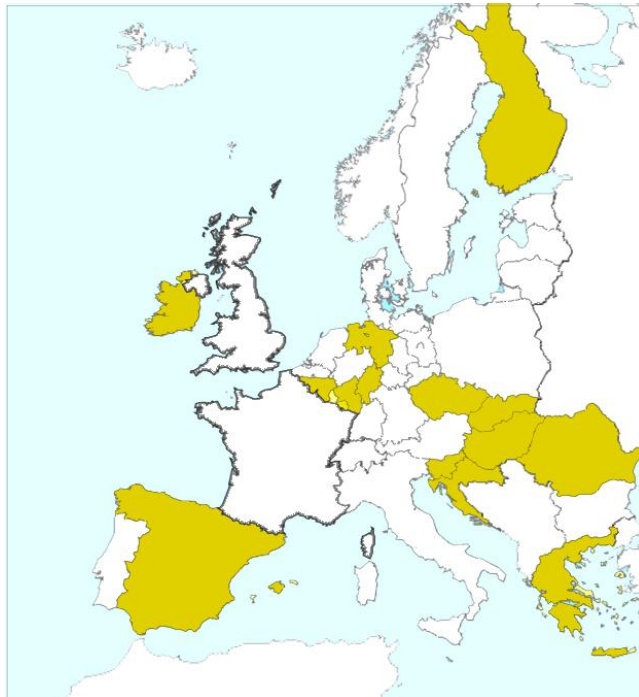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은 비교적 최근 시작된 이니셔티브로, 아직까지 그 효과성 및 개선사항을 논하기엔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이다. 참여국에서 작성한 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2019년 상반기에 첫 번째 국별 모니터링 보고서와 평가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며, 이 보고서가 출간되면 이전에 별도로 운영되었던 학교 우유 공급계획 및 학교 과일 공급계획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통합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유럽 국가의 학교급식과 지역농업 간 연계사례

앞의 2, 3장에서 설명하였듯, EU 및 유럽 국가들은 건강하고 신선한 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 국가들은 신선한 제철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특히 앞서 3.3.에서 설명한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 아래 유럽에서 생산한 신선한 제품을 교내에서 우선 공급하는 원칙과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의 국별 프로그램 이행 전략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가 학교 텃밭 프로그램, 농장, 농산물시장 등지로의 견학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 요리 실습, 그 외 유관 행사 및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거나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또한 많은 회원국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제공할 식품을 조달할 때 식품의 짧은 공급체인(short supply)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그림 6>.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학교급식 제도와 지역농업 간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두 국가의 사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그림 6> 학교급식 식품 조달 시 짧은 공급 체인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국가



■ 짧은 공급체인을 학교급식 식품 조달 시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국가

자료: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계획 소개 페이지
(https://ec.europa.eu/agriculture/school-scheme_en)

4.1. 영국의 'Food for Life' 프로그램

영국의 'Food for life' 프로그램은 영국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주도하고 식품운동가 Jeanette Orrey와 유명 요리사인 Jamie Oliver가 함께하는 학교급식 개선 및 먹거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 접근법(Whole school approach) 기조 아래 학교 전체가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및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제공 프로그램으로는 교내 텃밭을 활용한 먹거리 재배 활동, 요리 수업, 지역 농가와의 연계를 통한 농가 견학, 교내 파머스마켓 개최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 학교를 대상으로 한 Food for Life 인증마크 부여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의 기준을 통해 인증마크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각각 식재료의 품질, 먹거리 리더십 및 문화, 먹거리 교육, 지역사회

와의 파트너십이다. 각 학교는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금장, 은장, 혹은 동장의 인증마크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까지 총 850개의 학교에서 1,100개의 인증마크를 부여받았으며, 총 5,000개 이상의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의 네트워크에 등록되어있다. 각 인증 단계별 조건 및 기준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Food for Life 인증마크 단계별 조건 및 기준

종류	조건
금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Food for life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 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함. - 건강하고 윤리적인 지역 농산물을 많이 활용하면서 동물 및 기후 친화적인 식단을 제공함. 최소 15% 이상의 유기농 식품과 5% 이상의 자연방사 식품을 활용함. -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모두 급식을 먹음. - 지역 농가와 활발히 연계하고 학교 내에서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함.
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제공에 적합한 식기 사용. - 건강하고 윤리적인 지역 농산물 및 유기농 식품을 어느 정도 활용한 식단을 제공함. 최소 5% 이상의 유기농 식품을 활용함. - 요리 클럽을 결성하여 학생들에게 교내에서 재배한 생산물로 요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관련 이벤트에 참석하여 통해 먹거리 교육에 참여함.
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급식 정책을 마련하여 교내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 제철 식자재를 사용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함. 최소 75% 이상의 신선 식자재를 활용함. - 학교 급식 메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영양행동그룹에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함. - 모든 학생들이 지역 농가에 방문하고, 교내 요리 및 재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

자료: Food for Life 웹사이트(<https://www.foodforlife.org.uk/schools/criteria-and-guidance>)

본 프로그램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비교군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1/3 이상의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정말로 좋아할’ 확률 또한 40% 이상 높았다.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가공업체 및 도매업체의 경우 학교와의 계약으로 인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 및 수입을 확보하여 좋은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업체 공신력 향상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입지도 좋아졌다는 인터뷰 의견이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1유로 투자 대비 3유로의 사회적 편익이 환수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지역 식품 산업 및 고용 창출 효과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 또다시 지역 농업 및 식품유통 경제를 살리는 사회적 편익으로 환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이탈리아의 School Meals Program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학교급식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적절한 문화적 맥락 내에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0년 학교 영양 정책 개정 이후 이탈리아의 학교급식은 지역 농산물 혹은 인증 받은 유기농 제품을 활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70% 이상이 유기농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조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신선도 보장'이라는 추가 기준을 도입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일과 채소의 경우 수확된 지 3일 이내에, 육류의 경우 4일 이내에 소비되도록 하였다. 즉, 식품 공급체인을 매우 짧게 설정하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 외 학교 급식 조달과 관련한 기준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이탈리아 학교급식 조달 관련 최소 기준

비식품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쓰레기 및 비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 환경 영향이 적은 세제 및 소독제 사용 - 재활용 가능한 생분해성 일회용 재료(예: 냅킨) 혹은 도자기 그릇 및 스테인리스 식기 사용
식품부문 최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빵, 콩, 곡물, 올리브오일, 파스타, 쌀, 치즈, 과일, 채소 등에 관한 규정(EC No 834/2007)에 부합하는 유기농 식품 - 유전자 변형 식품 금지 - 과일 및 채소(예: 차드, 꽃상추, 셀러리, 바질, 그린 셀러드, 딸기, 체리)에 대한 '신선도 보장'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수확 시기로부터 3일 내에 섭취가 가능해야 함. 해당 농산물의 수확업체, 수확일, 식품가공센터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육류 신선도: 적색육, 백색육은 포장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진공포장 팩으로 배송되어야 함. 의회 결의안 EC No 510/2006에 따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냉장육 및 일부 치즈류에 대해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nomination of Origin)' 및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를 도입함. - 요리법 및 메뉴 계획은 계절감을 고려함. 겨울과 여름 메뉴는 9주 주기의 160개의 조리법을 기획함. 급식 제공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육류는 일주일에 최대 두 번만 제공함. 식사 1회의 기준 단가는 528 유로로 산정함.

자료: Green Public Procurement(n.d.)

위와 같은 정책 전환으로 이탈리아 급식의 식사 1회당 평균 비용은 약 8%(0.4유로) 증가하였다. 식품 조달 업체들은 복잡하고 엄격하게 바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학교 급식의 육류 섭취 횟수 제한으로 연간 약 8,88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고, 5,783m³의 물 소비량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더불어 재활용 그릇 및 식기의 사용으로 연간 1,800톤의 플라스틱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는 지역 농산물 및 유기농 제품에 대한 조항과 함께 식기 재활용 및 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한 내용을 급식 조달 기준으로 함께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식품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5. 맺음말

유럽 국가들은 각 국가의 특징 및 현황에 맞는 학교 식품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해왔으며, 그 양상이나 적용 범위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EU는 회원국들이 학교 식품 정책 및 학교급식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학교 우유 공급계획, 학교 과일 공급계획)을 마련했고,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 EU의 회원국 지원 프로그램인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은 개별 회원국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여 국내 학교 식품 정책 및 급식제도와 밀접하게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 규모 및 EU 분담률을 높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불어 최근 도입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및 유제품을 학교급식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식품환경 조성 등의 이유로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EU 학교 과일, 채소 및 우유 공급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이전 프로그램 대비 현재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주목함과 동시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학교급식 제도와 지역 농업 간의 혁신적 연계방안을 발굴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6. 『해외 학교급식 관리제도 현황』 .
- AFC Management consulting AG & Co-Concept Marktberatung. 2012. Evaluation of the European School Fruit Scheme Final Report.
- AFC Management consulting AG & Co-Concept Marktberatung. 2013. Evaluation of the European School Milk Scheme Final Report.
- European Commission-DG AGRI. 2017. EU School Fruit, Vegetables & Milk Scheme 2017/2023 What's new [Powerpoint Slides].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nutrition_physical_activity/docs/ev_20171129_co02_en.pdf) (검색일: 2018.12.10.)
- Green Public Procurement. (n.d.). Sustainable Food Procurement for Schools in Rome. (http://ec.europa.eu/environment/gpp/pdf/news_alert/Issue14_Case_Study34_Rome_food.pdf) (검색일: 2018.12.10.)
- Storcksdieck, S., Kardakis, T., Wollgas, J., Nelson, M., & Caldeira, S. 2014. Mapping of National School Food Policies across the EU28 plus Norway and Switzerland.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참고사이트

- 유럽위원회 웹사이트 (<https://ec.europa.eu/>) (검색일: 2018.12.11.)
- Food for Life 웹사이트 (<https://www.foodforlife.org.uk/>) (검색일: 2018.12.11.)